

한라칼럼



우정애
교육학 박사

중년을 넘어서며 오는 변화

80일 동안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노인은 더 먼 바다로 떠난다. 그중 되면 그냥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힘들고 절망적인 그 시점에서 한걸음을 더 내딛은 것이다. 84일째 노인은 넘쳐나는 청새치 떼를 만났고 감당하기 어려운 청새치를 건져 올리는 사투가 시작된다. 어네스트 헤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다. 기력이 다해 절망적일 때 용기 내어 한발만 더 내딛으면 그 곳이 바로 원하는 목적지일지도 모르는 우리네 삶을 암시하며 꿈을 갖고 변화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대목이다. 또는 절망에 이르러서

다시 집착하는 용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는 가르침이 녹아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늘 그렇듯 살아온 삶도 뒤돌아보면 가르침이 너무 많다. 가르침과 삶의 의미는 지나고 난 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의미도 모른 채 경험했다.' - T. S. 엘리엇(Eliot) 중년을 넘기며 의미도 모른 채 경험한 것들을 추려서 뼈대를 세워보니 내 앞에는 깊게 뿌리 내려진 변화된 '나'를 보게 된다. 언제, 어떻게 다가온 것인지도 모른채 맞이한 것이다. 그 변화의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생활방식의 변화이다. 어려움이 오지 않길 바라는 기도와 함께 그림에도 온다면 고통스럽게 받아드리지 않으려는 긍정으로 무장해진 자세, 다름보다 수용이 더 편안한 것이었다. 둘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이다. 내 틀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상대에게 맞춰주는 관계가 가장 속편

한 관계임을 알고 그렇게 옮기려 하는 자세이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아들, 딸들에게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중년을 넘기며 흘러온 지금은 나보다 더 위대한 무엇과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며, 미래 자식세대를 위해 남겨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자식세대를 위해 남겨둘 것이라곤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 문화와 연관이 깊고, 더 큰 유대감을 갖고 싶은 욕구는 영성일 것이며, 목적은 나의 소명과 비슷할 것이다. 나의 변화는 이러한 욕구에서 비롯됐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욕구들은 나와 친숙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변화를 원하게 된다. 이 친숙함이란 먼저 일상에 주어진 소박한 것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다. 또 하나는 직업인 심리상담을 더 깊게 나에게 녹여내어 해왔던 일에

도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기를, 소년과 앉아 밥 먹기를 상상한 것은 일상의 소박한 것에 행복과 슬픔을 느끼는 나약한 노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이 사는 동안 우리에게 큰 행복임을 절실하게 느끼기까지 나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것을 중년을 넘기며 깨닫게 된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좌약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 운이 따르지 말아야. 믿음을 가져야 해.' -노인과 바다- 중년을 넘어서며 꿈과 희망,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싶은 나의 욕구를 위대한 누군가와 유대감 속에서 힘을 얻고 친숙한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며 책임을 다하고 싶은 나의 변화인 것이다. 아울러 이 변화는 곧 나의 꿈이자 남기고 싶은 그 무엇이 될 것이라 믿는다.

사설

제주 관문에서 방역망이 뚫려선 안된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방역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에 입도한 해외방문 이력자 중 일부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뜰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특별입도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해외 입국자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입도절차 안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지역 15번째 확진자 등 해외방문 이력자가 입도 과정에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경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입도한 해외방문 이력자 317명 중 30명(9.4%)이 제

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입도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해외유입사례는 크게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사회적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다시 유행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철저한 방역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건너 뛰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처가 늦어지는 셈입니다.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해외 입국자들은 제주공항에서 한명도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술 한 잔도 음주입니다.



이지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검문이 중단된 이후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고가 많게는 6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지구대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을 꽤 자주 적발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 전 대비 다소 상충한 모습을 보여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 위험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 하에 음주운전 차량 단속 시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이 감지되는 비접촉 감지기를 이용해 늘어나는 음주운전 확신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소위 '음향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 차량 적발이 잠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차량 적발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음주사고는 평생 씻지 못할 후회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뿐만아닌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술자리 모임 시에는 차를 두고 다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음주 측정 기준에서는 막 술 한 잔만 마셨더라도 단속 수치 나와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뉴스-in

이번엔 '해파리' 바람잘 날 없는 제주바다

7월 중순 주의보 수준 예상
○...제주해안이 맹생이모자반에 이어 구멍갈파래의 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파리 유입이 예고돼 행정당국이 초긴장.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무라임깃해파리는 울여름 고수온의 영향으로 7월 중순쯤 고밀도로 출현해 주의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도 관계자는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연안에 유입된 맹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수거하고 또 해파리로 인한 해수욕객의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 이태윤기자

"보전 전체 개발 입장 분명"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합리적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 이 교육감은 15일 주간기획조정

회의에서 "해당 부지가 산남 교육문화 중심지이고, 녹지 공간이라고 보전을 전체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언급. 그러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소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 전선희기자

제주항공 정비사 격려 나서
○...제주항공이 이른 무더위로 뜨거운 활주로에서 안전운항을 위해 애쓰는 정비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해 눈길.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임직원들은 15일 이른 오전 김포국제공항 제주항공 정비본부 라운지를 방문해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정비사들에게 자외선 차단제와 마스크팩 등을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 제주항공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지만 즐겁게 일하는 조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소개. 고대모기자

도축진원 '무허가 행정', 타 기관은 없나

제주도 산하 사업소인 도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행정절차를 거둬 위반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십t 처리물량의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수 십억원 들여 허가없이 설치했는가 하면 준공검사도 없이 수 개월을 사용했다가 고발조치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축산진흥원이 관련 행정절차를 숙지못했다는 해명도 가관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제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단은 작년 11월 도축산진흥원이 14억5000만원을 들여 하루 15t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액체 비료 처리시설·냄새저감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정화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한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도

관련 시설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가동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도축산진흥원을 가축분뇨법 위반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해당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1개월 사용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초유의 사례에다 공공기관에 의해 고발되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도축산진흥원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 못해 생긴 일로, 변경허가를 거쳐 8월부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된다"는 공색한 변명입니다. 이번 사안은 위반사실의 경중을 철저히 따져 '원칙'대로 처리돼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여름철 가축분뇨 처리위반행위에 대한 축산농가 대상 단속활동이 한창이 이뤄지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도 산하 사업소 외에 도청 직속기관들까지도 비슷한 사례들은 없는지 행정시는 추가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금매

- 품 목 : 운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